



오페라 명작 '한자리'... 잊지 못할 감동 선사



오페라 역사에 빛나는 명작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시립오페라단 2024 송년공연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IV'가 오는 7일 오후 2시30분과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에서 열린다.

세기의 명곡 중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를 갈라 콘서트로 선보이는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는 4년 연속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 송년 공연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등 대중이 사랑하는 명곡과 오페라 대표 합창곡들을 선보인다. 즐거운 음악과 품격 높은 성악곡으로 경쾌한 오페라 축제의 장이 꾸며진다.

지휘자 박인욱(전남대 음악학과 교수)과 (사)카메라타전남, 피아니스트 김성근이 협연자로 나서 세기의 명곡을

오는 7일 광주시립오페라단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IV' '한국 파바로티' 테너 조용갑 등 국내외의 우수 성악가 협연

연주한다. 여기에 특별 초청된 '한국의 파바로티' 테너 조용갑을 비롯해 광주CBS어린이합창단, 안무가 신승우·이승민 무용수가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올 한해 광주시립오페라단 주역으로 활약한 오페라 스타들이 총출동해 화제를 모은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소프라노 김희정, 테너 강동명, 바리톤 공병우, '토스카'의 소프라노 김라희, '신데렐라'의 메조소프라노 서미선 등이 오페라의 진한 감동을 재현한다.

오케스트라와 감미로운 합창, 최고의 성악가들이 선사하는 환상적인 무대에 아름다운 무용이 더해져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화려한 무대 위 감미로운 명곡의 향연과 함께



테너 조용갑



예술감독 최철

황정숙 아나운서의 흥미로운 해설이 더해져 오페라의 깊은 감동을 누구나 쉽게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당일 관객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7일 오전 11시 ACC 예술극장 라운지에서 열리는 아카데미 '오페라 the 가까이'다. 전문가의 작품 해설, 출연진과의 대담, 오페라 아리아 공연,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으로 구성됐다. 오페라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문화예술교실 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가 이뤄진다.

최철 예술감독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연말을 보낼 수 있는 선물같은 시간을 준비했다"며 "시립오페라단의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를 통해 올 한해의 끝을 오페라의 감동으로 장식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공연은 전석 2만원으로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동구친구' 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

〈동구형 관광헬퍼〉

동구문화관광재단, 총 90회 5천400명 관람객 맞이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 문창현)이 운영하는 동구형 관광헬퍼 '동구친구'가 지역 문화·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동구형 관광헬퍼 '동구친구'는 지난해 12월 동구만의 맞춤형 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양성했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을 중심으로 문화해설 경력자, 서비스 강사뿐만 아니라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 등 25명으로 꾸려졌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동구친구'는 90회에 걸쳐 국내외 관람객 5천400명과 함께했다.

▲광주충장축제 및 광주버스킹월드 컵 운영지원 ▲광주아트페스티벌 팝업스토어 운영 ▲기후환경 국제포럼 참가자 인문투어 해설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지역민을 대상으



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창출했다.

문창현 대표는 "'동구친구'는 동구관광의 얼굴이자 자부심인 만큼 앞으로 이들이 자긍심과 전문성을 갖춘 수 있도록 재단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지난달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고 '동구친구'의 역할, 최신 관광트렌드,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다 향상된 동구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의견 교류 시간을 가졌다. /최명진 기자



'쌍둥이자리 유성우' 만나볼까

광주과학관, 13일 수변공원 거정이심터

국립광주과학관이 올 겨울 최대 우주쇼인 쌍둥이자리 유성우를 맞이하며 특별 천문행사를 연다.

오는 13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영산강 수변공원 거정이심터(북구 신용동 352)에서 진행되는 '쌍둥이와 목금토성' 행사다.

별뿔별로 불리우는 유성은 유성체가 지구 중력에 의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지구로 떨어지면서 밝은 빛줄기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성체 크기는 수 마이크로미터 수 미터까지 크기가 다양하며, 매일 지구로 떨어지는 유성체는 약 100톤 정도다.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소행성 3천200 파에톤이 우주에 흩뿌린 잔해대를 지구가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유성우로,

매년 12월 중순에 만나볼 수 있다. 올해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14일 오전 10시에 극대를 이루며, 극대 전후로도 며칠간 유성우를 관측할 수 있다.

이날 행사 참가자는 전문가 설명을 통해 유성우 관측을 체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천체망원경과 쌍안경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달과 별·목성·금성·토성을 만날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밤하늘을 기념할 수 있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윤요셉 국립광주과학관 연구원은 "영산강 위의 밤하늘을 수놓는 별비가 시민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별도 예약 없이 현장 접수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나만의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보세요~"

18-19일 ACC 청소년 창작워크숍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8-19일 문화창조원 복합스튜디오에서 나만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작해

볼 수 있는 'ACC 청소년 창작워크숍'을 운영한다.

올해 마지막 'ACC 청소년 창작워크숍'은 ACC 창작·제작 기반 시설 및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에게 작

품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 공간으로 사용될 복합스튜디오는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는 ACC의 차별화된 공간으로, 참가자는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제작부터 완성까지의 창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ACC 청소년 창작워크숍' 참가신청은 오는 15일 밤 11시까지 ACC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20명을 선발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이강현 전담장은 "다가오는 성탄절에 장식할 트리를 제작하며 창작·제작에 대한 관심을 넓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

